

청소년 뮤지컬단 '마리첼' 공연 유튜브 공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튜브 채널서 23일 사운드 오브 뮤직 원작 '폰트랩가의 이야기' 만날 수 있어

전북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뮤지컬단 '마리첼'의 공연이 23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튜브채널(Sori Arts TV)에서 무료 공개된다.

이에 따르면 공연은 사운드 오브 뮤직 원작의 '폰트랩가의 이야기'로 기존의 스토리가 전쟁 속에서 빛어지는 가족애의 확인과 사랑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 갈등, 사랑에 초점을 맞춰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다.

특히, 청소년 뮤지컬단 '마리첼'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북교육청과 함께 공연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청소년 뮤지컬 워크숍 '상상극장 SORI'에 참여한 학생들로 구성됐다.

'상상극장 SORI'는 전문 뮤지컬 배우에게 연기과 춤, 노래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을 받고, 직접 뮤지컬 무대에 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 스태프들과 만나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진로를 탐색해보는 공연제작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 '마리첼' 단원들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문 강사로부터 뮤지컬 관련



전북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뮤지컬단 '마리첼'의 공연이 23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튜브채널(Sori Arts TV)에서 무료 공개된다.

교육을 받고 연습한 후 지난 10월 21일 전당 연지홀에서 생애 첫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청소년 뮤지컬 워크숍 '상상극장 SORI'는 K-POP 등의 영향으로 공연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 무대에 서는 경험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전당은 다양한 예술교육프로

램을 기획해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당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상상극장 SORI'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천년을 뜨고 지면'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된 극단 삼육오가 창작한 초연작품 '천년을 뜨고 지면' (부제 - 진묵, 노닐다 간 지리)이 지난 18~19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출연 배우들이 열띤 연기를 펼치고 있다. '천년을 뜨고 지면'은 진묵대사의 행적과 설화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무대화 공연이다.

남원에어레일, 수험생 대상 수험표 할인 이벤트 진행

남원관광단지에서 남원 힐링 여행 코스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레일을 운영하는 남원테마파크는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달콤한 수험표 할인 수능 이벤트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제시하면 지역주민 요금으로 특별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순환권 기준 3,000원(정상가 16,000원)을 본인 포함해 4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4인 기준 최대 12,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남원관광단지 에어레일은 총 길이 2.44km 최고 높이 11.2m의 레일 위에서 고즈넉한 남원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극단 한해랑, 영화배우 양현민 초청 무료 토크 콘서트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 한해랑(대표 유람식)이 영화배우 양현민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 19시 전주시 한해랑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전석 무료다.(선착순 200명 입장)

이번 토크 콘서트는 영화 '극한직업', '봉오동 전투' 등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영화배우 양현민을 초청해 '긴장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관람 문의는 전화(010-3391-3525)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찾아가는 '문화누리 문화장터'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실·원주시 11월 3회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1월 중 3회에 걸쳐 '문화누리 문화장터'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도내 지역 주민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직접 찾아가는 행사다. 지난 18일 임실 관촌면사무소, 22일 임실 오수면사무소, 29일 원주 고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장터에서는 생활한복, 나무밥상 및 도마, 편백나무베개, 각종 천연염색제품(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있음) 등 가맹점이 엄선한 다양한 수공예품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 문화누리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4만 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으로 밀폐 반찬통, 7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릎담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두 품목을 모두 증정한다.

재단 류상록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은 "문화누리카드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문화누리 문화장터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둘레, 고품격 인문학 콘서트 '샘고을 달빛 풍류' 개최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둘레에서 제작하는 고품격 문화예술 인문학 콘서트 '샘고을 달빛 풍류'가 오는 24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샘고을 달빛 풍류는 2021년 6월 24일에 첫 시작으로 악(국악기와 서양악기), 가(노래, 성악, 소리 등), 무(댄스, 한국무용, 발레 등)와 함께

인문학 강의 등이 어우러진 공연이다.

이번 24일 '샘고을 달빛풍류'에서는 현)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의 이사장인 송재영 명창과 전주대사습놀이 명고수부 장원 박상주의 판소리 공연, 국악, 서커스, 연극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융합하여 서로 다른 장르의 접점을 찾아 새

로운 발전 가능성을 실험하는 예술단체인 휠러스의 '놀부FLEX'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단법인 둘레의 안수용 이사장은 "정읍사람들의 스타일이 담긴 정읍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샘고을 문화공유도시에 향토적 가치를 특성화하고자 만든 공연이다"며 "샘고을 달빛 풍류가 시민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정읍만의 풍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가족음악극 '멸종위기 동물편' 29일 공연

남원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친숙한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음악극 '멸종위기 동물편' 공연을 가진다.

이번 공연은 2022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잊히고 버려졌던 사람 로빈슨이 쓰레기섬에서 고래와 동화속 피노키오와 멸종위기의 오랑우탄, 코뿔소를 만나 별이 이야기로 퍼포먼스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맞게 하며 잊히고 버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무대에서 표현되는 오브제와 무대들이 모두 업사이클링 되어 탄생된 소품으로 이를 통해 예술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관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모아 고래 배속에 넣어 점점 배가 불룩해지는 현상을 보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시각적으로 체험시킬 예정이며, 전석 무



료관람으로 만 3세 이상은 누구든지 관람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